

지역 문화의 해석에 있어서 경관 연구의 함의

전 중 한*

-
- I. 머리말
 - II. 경관 개념과 연구사 개관
 - III. 경관에 접근하는 관점들
 - IV. 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및 주요 연구 사례
 - V. 맺음말
-

I. 머리말

경관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매우 흔하고 단순한 용어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경관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는 편이며, 경관의 의미를 풍경이나 경치 혹은 유적과 혼동하기도 한다. 심지어 경관이 일상적인 말이기 이전에 지리학과 역사학의 오랜 학문적 주제이자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듣고서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풍경(scenery)이 일정한 시간대 혹은 일정 범위의 공간이 드러내는 다소 막연한 분위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경치(scene)란 풍경 중의 순간적이고 인상적인 한 장면을 뜻한다. 그리고 유적(relics)은 주로 물리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남겨 놓은 역사의 단편적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관(landscape)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의 층위는 대단히 두껍다.

이 연구는 지역 문화 연구에 있어 경관 연구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 개념과 경관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하며, 이러한 개념적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문화지리학계에서 활용되어 온 경관 연구를 위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경관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자료들, 그리고 주요 경관 연구

* 경인교육대 사회과교육학과

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지역의 가시적 경관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이면서 과정 그 자체를 보여 준다는 점, 따라서 경관은 인간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권력들 간의 순간적인 균형이자 평형 상태를 대변하며, 또한 거기에는 인간의 사상, 태도, 미학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회적인 권력 관계, 시대성·지역성을 반영하는 인간의 심미적 차원(aesthetic dimension) 등을 누적하고 있는 지리적 실체가 바로 경관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II. 경관 개념과 연구사 개관

이미 20세기 중반 영국의 지리학자 다아비(H.C.Darby)와 역사학자 호스킨스(W.G.Hoskins)는 각각 「영국의 경관 변화(The Changing English Landscape)」(Darby, 1951)와 『영국의 경관 형성(The Making of English Landscape)』(Hoskins, 1955)과 같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각기 역사지리학(historical geography)과 경관사(landscape history)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적이 있다.

영어권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된 이 용어는 원래 독일어의 ‘란트샤프트(Landschaft)’에 기원을 둔 말이다. 근대 독일 지리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의하기를, ‘한 지점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의 일부, 특히 다양한 지리적 요소들이 ‘조화와 통일의 상태에 있는 지표의 일부’를 의미하였다. 경관은 단편적 조각이 아니라 경관 요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체계(system)라는 사실, 그리고 경관 개념에는 관찰자가 서 있는 한 지점, 즉 시선 내지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의 한 지점이란 바라보는 사람이 위치한 물리적, 사회적 위치를 모두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경관의 의미가 이처럼 지표의 일부로서 정의된다는 점, 여기에서 우리는 ‘경관 연구’와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다루는 ‘지역 문화 혹은 지방사 연구’의 관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게 된다. 때때로 ‘어떤 시각에서 그 지방의 이야기를 구성할 것이냐’하는 관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은 지방사[역사학]도 될 수 있고 뒤집으면 경관 연구[지리학]도 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 지방사의 전통을 각 시대별 ‘地理誌’와 조선시대의 각종 ‘邑誌’(‘邑史’가 아닌)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우리는 전통적인 지방 연구의 관점이 다분히 지리적인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의 지방사가 역사적 틀을 갖고 지리, 경제, 사

회, 문화 등을 담아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지역 문화 연구에서는 지리적인 틀 속에서 인물, 역사, 물산, 사회, 문화 등을 포용하였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화지리학자들은 경관의 형태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러한 전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경관 연구에서 유물론-후기구조주의 논쟁이 유행하였다. 양자 사이의 논쟁은 생산적이어서, 오늘날에는 그러한 논쟁이 잦아들면서 유물론자들은 ‘실재(reality)’를 이해하기 위해 오히려 경관 재현이 갖는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반대로 경관 재현과 관련된 언어적 혹은 담론적 분석가들은 ‘지표 위에 놓여 있는’ 실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국가적, 민족적, 집단적, 젠더 차이를 조장하거나 생산하는 데에 있어 경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관심들이 현대 경관 연구의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지역의 경관을 자연, 역사, 사회, 인간의 심미적 차원 등에 깊이 연루시켜 이해함으로써 경관의 외면적[형태적] 가치와 내면적[상징적] 가치를 충분히 살려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경관의 외면적/내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리학적 접근 방법을 그 관점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경관의 복원적 연구, 상징 경관의 해석에 대한 연구, 그리고 경관의 텍스트적 재현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 중 경관의 복원적 연구가 경관의 외면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라 한다면, 나머지 두 개 관점은 상대적으로 경관의 내면적 가치에 치중하는 관점이다.

III. 경관에 접근하는 관점들

1. 경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

지리학계에서 이것은 경관에 접근하는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이 관점의 존재론에서는 경관을 실재했던/실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인식론에서는 경관의 물질적, 가시적 차원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관을 정확히 복원(reconstruction)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가령 14세기 한양의 토지 구획을 복원한다거나, 간척으로 인한 강화도의 해안선 변화 과정을 복원하는 것, 조선후기의 소금 길을 복원하는 것 등이 그러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과거의 경관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복원이 있다. 하나는 ‘과거의 한 시대’ 혹은 ‘특정 시점의 것’을 복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 남겨진 경관을 단

서로 삼아 ‘일정한 시기 사이에 전개된 경관 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가령, 개항 전후 인천의 자연 및 인문 경관에 대한 연구(최영준, 1974), 백제 사비 도성의 토지구획에 관한 연구(박해옥, 1992), 신라 왕경의 공간적 범위와 구역에 관한 연구(이기봉, 2002) 등은 모두 ‘개항 전후’, ‘신라시대’, ‘백제시대’ 등 특정 시점의 경관을 복원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그리고, 농촌 경관의 형태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류제현, 1979)라든가,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 변화 연구(김기혁·김성희, 2002), 내포지역의 해만개척 과정과 경관 변화에 관한 연구(전중환, 2003) 등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일정한 시기 사이의 경관 변화를 복원한 것으로 후자의 유형에 해당한다.

과거 특정 시점의 경관을 복원하는 방법은 20세기 전반 다아비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역사 지리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전중환, 2002). 그들은 과거의 경관 중에서도 삼림지 벌채, 습지의 배수, 황무지 개간 등을 주제로 한 복원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거기에 적용된 자신들의 방법론을 횡단면법(cross-sectional approach)이라 불렀다. 다아비는 횡단면법에 대해 정의하기를 ‘경관 변화의 연속적인 단계에 있는 어느 한 시기를 하나의 단면(cross-section)으로 끊어 복원하는 방법’이라 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면 횡단면법은 수직적 내러티브(vertical narratives)라는 방법과 발전적으로 결합되었다. 수직적 내러티브란 경관 변화에서 의미 있는 횡단면을 여러 개 설정함으로써, 특정 시점의 경관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횡단면(시점) 사이의 경관의 연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한편 현재에 남겨진 문화 경관을 단서로 하여 과거로부터의 경관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은 퇴행적 방법(retrogressive approach)이라 불린다(류제현, 1994). 이것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현재의 경관을 토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행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말 그대로 퇴행적인 접근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특정한 분포 범위를 가지는 물질 문화 경관의 존재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이다. 즉, 현재의 문화 경관을 분석해서 과거의 각 시대에 성립하였던 경관 부분을 식별해 내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후세에 첨가된 경관 부분에 대해 환원과 소거를 계속한다. 이를 통해 최종 목표인 과거의 문화 경관에 도달하는, 과거 특정 시대의 문화 경관을 복원하는 방법인 것이다(기꾸치 도시오, 윤정숙 역, 1995). 이 방법은 미국의 사우어를 비롯한 버어클리(Berkeley) 학파에서 문화 경관의 기원과 전파를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널리 활용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경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는 많은 사례가 축적되었으며 가장 전통적인 경관 연구로서 자리 잡아 왔다. 예를 들면,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 연구(최영준,

1991), 영남 지방 비보 풍수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연구(최원석, 2000), 18-19세기 交河地域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홍금수, 2001), 영산강 유역의 경관 변화 연구(김경수, 2001),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조정규, 2002), 『家戶案』 분석을 통해 본 개화기 경상남도의 가옥형태와 구조 연구(최영준, 2004), 인천시 華僑街의 성쇠과정(1884-1992)에 관한 연구(류제현, 2006), 箭串場의 경관 변화 연구(홍금수, 2006) 등이 대표적이다.

2. 상징 경관의 해석에 대한 연구

경관은 가지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과 함께 비가지적인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경관은 노동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형태적(morphological)’인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사람과 물질 세계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이며 상징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경관은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나 삶의 관계, 사회적 정체성 등을 반영하기도 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일정 범위의 지표에 대한 지배의 권위를 주장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인 제 실천과 경관은 끊임없이 상호 구성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맥아더 장군 동상이나 전쟁 기념관 등과 같은 기념 경관(monumental landscape)은 대개 특정한 전쟁 영웅이나 군사적 정복을 찬양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이 기념 경관은 단일한 사회적 연망(nexus) 속에서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일부 역사협회, 향토사가, 도시계획가, 예비역 연합회 등이 힘을 합쳐 집단적으로 생산한 것이며, 이렇게 생산된 기념 경관은 군대 문화나 남성중심주의와 같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유포시키는, 즉 특정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회적 실천과 경관 사이의 상호 구성적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경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에 있어서도 그 경관이 가진 시대적, 공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해보려는 시도를 종종 수행한다. 그러나 ‘복원적 연구’와 ‘상징 경관 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복원적 연구가 “과거의 문화 집단 전체가 ‘집단적으로’ 경관을 만들었고 ‘집단적으로’ 읽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는 것에 비해, 상징 경관 연구에서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안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존재하며, 이로부터 다양한 계급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국 하나의 경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계급적 시선에서의 경관 읽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던컨(J.Duncan)과 같은 학자는 “경관이 서로 다른 관찰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관은 경합 상황에 있는 다양한 담론과 지식들이 서로 교차하는 상호텍스트적 매체(intertextual media)로 기능한다”라고 말하였다. 미첼(D.Mitchel)과 같은 지리학자는 “경관 연구가 지나치게 형태성, 가시성에 의존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경관 생산에 실제로 기여한 노동자들의 역사와 같은 비가시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경관의 상징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자들은 대부분 텍스트 메타포(text metaphor)를 사용해 왔다. 즉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처럼 읽어 내자는 것이다. 텍스트가 마치 한 권의 책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경관 역시 우리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래서 그 숨은 의미, 그것에 내포된 상징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 메타포는 성서적 전통에 뿌리를 둔 비판적 문학 이론(critical literary theory) 및 ‘텍스트가 언어에 선행한다(the text precedes language)’는 데리다적(Derridean)적 문제의식에서 자라난 것이다.

텍스트 메타포의 입장에 서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영어권의 경관 연구자들은 다양한 건축 형태와 그 배치 상태를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가령 전통시대 중국과 조선의 도성 형태가 사각형이었다는 것을 天圓地方에 터한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읽어 내거나, 현대 도시의 한 복판에 있는 마천루의 높이를 권력과 근대성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경관을 해석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상당량 축적되어 왔다. 古淸州의 공간적 배치와 상징성을 당대의 세계관에 정합시켜 해석한 연구(임덕순, 1998), 경복궁과 구조선충독부 건물의 관계를 시대별 상징물 전쟁으로 읽어낸 연구(윤흥기, 2001), 진주 지방의 경관을 역사 도시라는 맥락에서 해석한 연구(김덕현, 2001), 하회 마을의 종택 경관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 이해한 연구(권선정, 2003), 조선시대의 읍치 경관 원형을 당대의 풍수지리 사상 및 왕권 확립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관련시켜 이해한 연구(전중환, 2004), 민촌적 배경을 가진 한 마을의 경관 특성과 경관 변화를 민촌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성격과 관련해 읽어 본 연구(전중환, 2005) 등이 대표적이다.

3. 경관의 텍스트적 재현에 관한 연구

경관의 텍스트적 재현이란 경관을 보고 느낀 우리의 인상을 그림이나 스케치, 지도, 내러티브적 기술이나 낙서, 계획도, 사진, 영화 등 다양한 텍스트적 방식으로 재현해 놓은 것을 말한다

다. 코스그로브(D.Cosgrove)와 같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이나 지도 같은 이미지들(images)에 집착하면서, 텍스트적 재현을 좁은 의미의 텍스트적 재현(textual representation)과 그래픽한 재현(graphic representation)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낙서들, 과거에 그려진 풍경화나 산수화, 조선시대의 고지도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경관의 텍스트적 재현인 것이며 이들도 경관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의 경관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 경관의 외관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실제 경관이 어떻게 비추어졌느냐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적 재현을 검토하게 되면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이 자신들의 외부 세계(external world)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았고, 무엇으로/무엇이라 이해하였으며, 그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은 다시 다양한 텍스트들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입장에서 18세기의 한 풍경화를 분석한 로우즈(G.Rose)의 연구(1993)가 있다. 그녀는 게인스버로우(T.Gainsborough)가 그린 ‘로버트 앤드류씨 부부(Mr and Mrs Robert Andrews)’(1748)라는 제목의 풍경화로부터 당대의 사람들이 보았던 경관 이미지를 해석하였다(그림 1 참조). 여러분도 그림을 보고 남자가 하는 말을 나름대로 상상해 보라: “자, 보라구. 내가 이 땅을 일구었지. 내가 일군 나의 땅이야.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앞으로 나는 이 땅을 끝까지 지킬테야. 멍멍아, 너도 도울거지?” 그리고 부인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저는 이 분의 아내예요. 저의 남편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한 존경해요. 그리고 이 분을 쏙 빼 닮은 아이를 낳아서 이분처럼 훌륭하게 키울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죠.”

실제로 로우즈는 이 풍경화를 보고 ‘자본주의적 재산 축적과 그 소유자의 권리를 찬미하는 당대의 경관 보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그림에서는 남성이 바로 토지 소유자이며 여성의 역할은 그에 수반하는 존재이자 재생산을 위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읽었다. 그림으로써 이 그림의 유포는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남성중심주의를 재차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관의 텍스트적 재현에 관한 연구란 사람들의 감각에 비춰진 경관의 이미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경관 연구의 한 유형을 말한다. 가령 조선시대의 금강산이라는 자연 경관을 이해하려 한다고 해보자. 금강산의 모습은 형태적인 면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을 그린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보면, 당대의 어떤 사회 집단들은 금강산을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우리와는 다른 인상을



그림 1. 로버트 앤드류씨 부부(Mr and Mrs Robert Andrews)
(T.Gainsborough, 1748년 작)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보고 실제 경관과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정선에게 그것은 ‘眞景’산수화였다.

특히 지방사 이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지도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해동지도(18세기 중엽)에 수록된 서천 지방의 고지도를 예로 들어 보자(그림 2). 필자가 보기에 이 고지도는 거의 전적으로 심상지도(mental map)이다. 사실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진 경관을 그린 것이다. 어쩌면 그렇기를 바라는 일종의 소망 경관(desired landscape)인 것이다. 이 지도에 그려진 山水의 흐름, 客舍, 衙舍, 鄉校 등 인문 경관의 배치를 보고 ‘18세기의 서천 지방의 경관이 어떠어떠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실증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고지도는 사실과 매우 다른, 지리적 요소들의 분포와 거리에 있어서 오류가 많은, 그래서 별 가치가 없는 지도로 치부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산줄기를 결코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 특히 가장 연속적이고 가장 많은 지맥을 거느리는 산줄기를 중시하였으며, 그 말단부에 객사(다른 건물이 아닌)를 입지시켰음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는 작은 산봉우리라고 할지라도 고지도에 ‘크게’ 그려져 있다면 당대 사람들에게, 어쩌면 현재의 서천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여전히 ‘큰’ 산봉우리일 수 있다. 객사라는 건물이 갖는 건평이나 규모도 중요하겠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1) 고지도

고지도는 근대 지도 이전, 즉 대략 조선 후기 이전에 그려진 그림지도들을 말한다. 고지도의 종류는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성도, 군현지도, 관방지도, 특수지도 등으로 나뉜다. 이중 우리나라 각 지방의 이해를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군현지도일 것이다. 그것은 군현지도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인 府, 牧, 郡, 縣을 단위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해동지도(공주목)



그림 4. 해동지도(홍주목)

현전하는 군현도는 조선 영·정조 시대에 제작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군현도는 시기별로 제목의 목적이나 지도의 계보, 지도의 내용 등에 딸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오상학, 2005). 첫째, 영조대 군현 지도 제작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 『광여도』 계열을 들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들 지도에는 군현지도뿐만 아니라 세계지도, 관방지도, 전도, 도별지도 등이 총망라된 종합적 지도책으로서 이미 영인되어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되어 있다. 둘째 대축적 전도의 발달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경위선표가 그려진 군현지도 유형이다. 이러한 군현지도책은 대부분 정교한 대축적 전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영·정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조선전도』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



그림 5. 1872년 군현지도(대흥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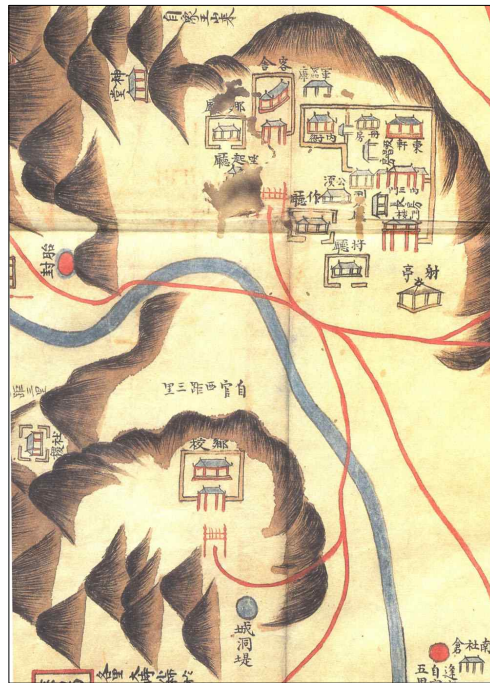


그림 6. 1872년 군현지도(덕산현)

에 다수의 사본이 전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지도책이 아닌 단독의 군현지도 유형이다. 이의 대표적인 지도는 1872년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수합된 규장각 소장 of 군현지도이다(그림 4). 이 유형에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와 같은 읍지의 부도도 해당된다.

다만 우리가 고지도를 분석할 때, 거기에는 인간이 경험했던 공간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상상 속에서 형성된 공간도 그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지도에 표현된 모든 공간이 당시 사람들이 객관적 실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오상학, 2001). 그렇다고 고지도가 정확성, 제작기술사적 검토, 투영법 등 실증적인 분석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고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역사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으므로, 고지도를 텍스트로서 인식하고 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중환, 2002; 권선정, 2003).

2) 읍지/지방지

읍지란 府, 牧, 郡, 縣 등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 구역을 단위로 작성된 地理誌를 지칭하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地方志 또는 方志라고 호칭한다(양보경, 1987). 읍지는 16-17세기의 사찬읍지, 18세기 이후에는 관찬읍지가 주로 발간되었다. 이들 읍지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미 각 도별로 영인되어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되어 있다.

읍지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각 고을의 산천, 形勝, 島嶼 등의 자연 경관, 지명, 고적, 누정, 학교, 사찰, 公廡, 성곽, 도로 등의 인문 경관, 기타 행정구역의 연혁, 풍속, 성씨, 인물, 호구 등 등 지방의 역사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사항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특히, 자연 경관 중에서도 山水의 배열과 같이 인간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지형적인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문 현상 중에는 성씨, 인물, 선현안 등과 같은 人物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누정과 같은 문화 경관을 소개함에 있어서도 그 곳을 거쳐간 名士들의 詩文을 인용하여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연, 인간, 경관을 서로 연관지어 보려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

3) 지적도와 토지대장

우리나라 지적도는 1912년 일제가 반포한 토지조사령에 의해 제작된 지적원도가 최초이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지적도는 모두 당시의 지적원도를 토대로 갱신되어 온 것이다. 지적도는 지번별 토지의 地目을 표시한 지도를 말하는데, 가령 그 토지가 대지[垸]인지, 논[畝]인지, 밭[田]인지, 아니면 도로[道]인지 하는 등의 토지의 성격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10년대에 발행된 지적원도에는 구한말의 토지 이용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그림 7 참조).¹⁾

지적원도는 정부 대전청사의 국가기록보존소에 마이크로 필름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열람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지적도는 지적원도를 바탕으로 광복 이후의 토지 이용 패턴을 반영하여 갱신된 것이다. 현재의 지적도는 각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1) 이 지적원도에는 지번별 토지의 성격, 즉 地目이 표시되어 있고 주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하천 등이 기입되어 있다. 특히 검은 띠로 색칠해진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서산읍성의 성곽 터이다. 地目은 '城'으로 표기되어 있고 읍성의 동서남북 네 곳에 출입구가 확인된다. 망루기능의 雉城이 7개소 있고, 특히 남문에는 甕城이 갖추어져 있다. 읍성 내에 많은 국유지가 보이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의 관아 시설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지적원도는 구한말 각 지방의 경관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가치가 크다.

있는데,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알아보고자 하는 위치의 번지를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지적도의 보조 자료로서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있다. 토지대장에는 각 지번이 소속된 동명, 해당 지번의 지목, 등급, 지적[면적], 연혁, 소유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지적도의 내용을 훨씬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이다. 또한 토지 대장과 지적도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일제 강점기 이후 시대별 토지 이용 패턴의 변화상을 복원할 수도 있다. 토지대장 역시 각 시·군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단 일제시대 이후 1960년까지의 사항이 기록된 토지대장을 구토지대장 혹은 구대장이라고 부른다.

4) 근대 지도

근대 지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적 실측, 기호화와 범례의 적용, 일관된 축척, 필사가 아닌 인쇄 및 이에 의한 대량 생산 등을 근대 지도의 주요 준거로 삼을 수 있다. 김정도의 《대동여지도》는 완벽한 실측 지도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준거들을 거의 충족하므로 관점에 따라서 근대 지도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측량 기술을 통한 지도 제작은 1890년대에 시작된다(김중혁, 2005). 일제의 한반도 측량은 1871년 일제의 병부성 참모국 내에 간첩대를 조직하면서 시작된다. 그 후 참모국은 참모본부로 개편되고 1888년에는 그 아래에 육지측량



그림 7. 서산 읍내리 일대의 지적 원도(1913)

부가 설치되었다. 여기에 소속된 간첩대원들은 1882년부터 한성과 주요 도회부에 대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1894년부터 1906년까지 조선의 산하와 취락, 도로 등을 측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축척 1:50,000 지형도 484매를 제작하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오늘날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로 영인되어 주요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 후 일제는 전국에 삼각점망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근대지도를 제작하였는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50,000 지형도 722매를 제작, 완료하였다. 이 지도는 광복 이후 미군정청으로 인계되었고, 1948년에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이 지도 역시 1985년과 1998년에 『근대 한국오만분지리지형도』라는 이름으로 영인되어 판매되고 있고 주요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한국 전쟁이후 1957년에는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가 창설되어 지도 업무를 담당하였고, 1961년에는 지도 제작 사업이 건설부 소속으로 옮겨진다. 그리하여 1963년 남한 전역을 망라하는 1:50,000 지형도 350매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남한 전역을 다루는 1:25,000 지형도 762매가 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건설부 산하에는 국립지리원 설치되었고 전국의 현대 지도를 제작해 오면서 지금에 이른다. 국립지리원은 2003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늘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도는 1:5,000, 1:25,000, 1:50,000 등 세 종류가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도로지도 같은 것들은 모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도를 토대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도는 각 시도별 대행판매소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5) 항공사진

항공사진은 원래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표를 촬영한 사진으로 공중사진이라고도 한다. 항공사진 중에서 지표를 바로 위쪽에서 촬영한 것을 수직사진, 비스듬히 촬영한 것을 사각사진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개 수직사진이며 사각사진은 언론 매체나 보도용 등으로 이용된다.

항공사진은 1920년경부터 전용 카메라와 항공기, 사진으로부터 측량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도화기(圖化機) 등이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현재는 지도를 만들기 위한 측량은 물론 지형, 지질, 삼림, 토지이용, 防災, 도시계획 등의 조사나 군사목적 등에 항공사진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항공사진은 2,000~6,000 미터 정도의 고도에서 1/10,000~1/40,000 정도의 축척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8.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항공사진 (충남대 마을연구단, 2006)
(왼쪽: 1968년, 오른쪽: 1998년)

우리나라 전역을 망라하는 각 지역별 항공사진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해 왔다. 시기별 항공사진을 비교한다면 각 지역별로 경지 면적의 확대나 축소, 시가지의 확산, 도로망이나 수로망의 변화, 삼림지 개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림 8 참조).²⁾ 항공사진은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면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6) 기타

이상의 자료 외에도, 조선시대 이래의 산수화나 풍경화, 국경 지방을 상세하게 그린 관방지도나 특수지도, 개인에 의해 작성된 일기류나 서찰, 여행기 등이 시대별 각 지방의 경관 변화를 복원하거나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제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주관 하에 조사된 다양한 방면의 지방 자료는 일제 시대 각 지방의 경관상을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위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1968년과 1998년 사이 이 지역의 경관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968년의 항공 사진에서 의항리는 거의 섬이나 다름 없었다. 1998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그 후 방조제 공사가 있었고 방조제 안쪽이 농경지로 개간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을 안쪽의 경지도 크게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항리가 온전한 육지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항공사진을 더욱 확대하여 판독한다면 경지 면적의 변화나 취락의 규모, 심지어 가옥의 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다. 가령 『大田發達誌』, 『京城都市計劃調查書』, 『瑞山郡誌』, 『仁川府史』, 『淸州沿革誌』, 『朝鮮地名攷』 등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일제 시대에 발간된 지방 자료는 현재 국내의 모 출판사에 의해 일괄 영인되어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보급되어 있다.

2. 주요 연구 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경관 연구의 세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각 유형에 대해 1개씩의 사례 연구들을 임의로 선택한 다음, 경관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경관의 복원적 연구의 사례로는 최영준에 의한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1991)를 다루었고, 상징 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는 전종한의 “근·현대 한 민촌의 경관 변화와 장소성의 전개”(2005)를 소개하였으며, 경관의 텍스트적 재현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는 일본인 지리학자 瀧谷鎮明의 “조선말기 郡縣圖의 표현방법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지형인식”(1998)을 제시하였다.

1) 강화 지역의 해안 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최영준, 1991)

강화도는 한강과 예성강의 하구에 있는 도서로서 우리나라 4대 도서의 하나이다. 강화도는 행정적으로 교동도, 석모도 등 큰 섬과 주문도, 불음도 등 10여 개의 작은 섬을 거느려 왔다. 강화도는 전통적으로 王都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조운선의 주요 통행로이자 대륙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조정의 군신들이 대피하던 전략적 요충이었다. 저자는 “한 지역의 요새화란 결코 관방시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펼 수 있는 병참기지의 기능이 병행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강화도의 해안 저습지 간척 과정이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고문헌과 고지도를 분석하였으며, 발행 시기를 달리하는 각종 현대 지도를 비교·연구하고, 연구지역을 답사하면서 중요한 지점에 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령 강화지역의 간척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 후기 및 조선시대의 각종 史書, 강화 및 교동의 읍지, 고지도, 조선 및 식민지 시대의 통계자료와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의 군현지도, 식민지 시대 및 현대의 지형도가 시대에 따른 간척사업의 전개과정과 해안선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1:50,000 개략도양도(농촌진흥청, 1971)는 原海岸線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문헌 및 각종 지도를 이용한 실내 작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 차례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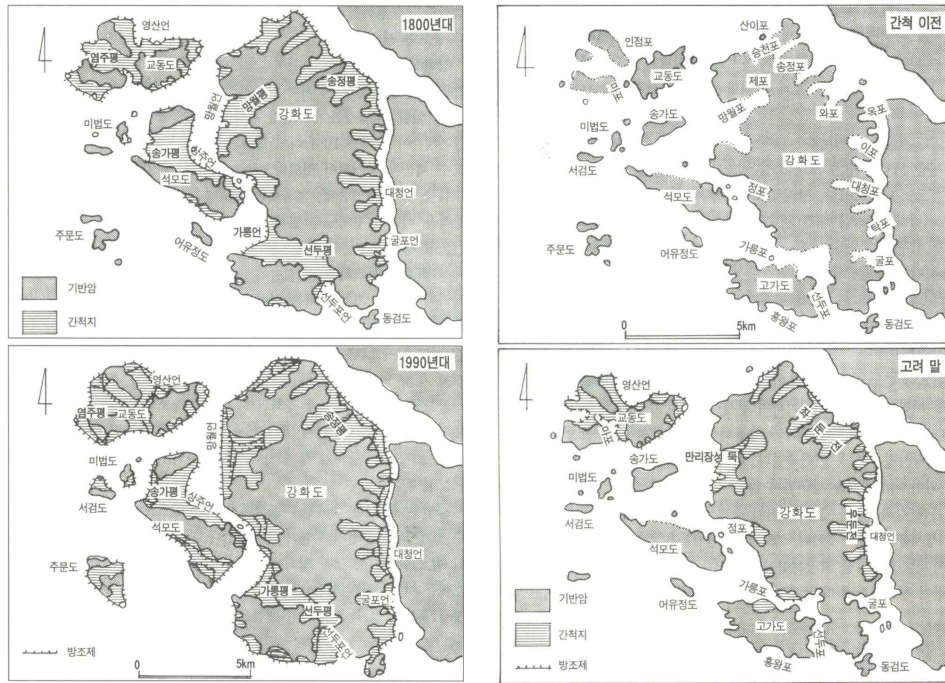


그림 9. 간척에 따른 강화도 해안선의 변화과정(최영준, 1991)

자료에 근거하여 그는 여말 선초를 강화도 간척 사업의 기원으로 생각하였다. 1232년(원종 11) 고려 조정은 몽고군의 침입을 피하여 황급하게 강화 천도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급증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해안저습지 간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강 연안의 제포와 와포, 염하 연안의 이포와 초포라는 곳에 독을 쌓아 屯田을 만들게 된다(그림 9).

조선 전기에는 약 200년간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강화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주목되지 않았고, 이 기간에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간척지 중에서도 방치된 곳이 있었을 것으로 그는 추측하였다. 임진왜란 직후에도 국고가 마르고 자연재해가 잇따랐으므로 장기간 많은 인력과 재력을 투입해야 하는 간척사업은 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그 후 현종대의 대청연, 가릉연, 장지연, 숙종대의 비포연, 북적연, 가리연, 선두포연 등 조선 후기에 많은 제언들이 축조되면서 강화도의 해안선을 크게 바꾸게 된다. 그리하여 강화 지역의 간척 사업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완료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1910년대까지 골곶포와 초지의 남쪽에 남아 있던 소금밭을 제외하면 개간 가능한 갯벌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 근·현대 한 민촌의 경관 변화와 장소성의 전개(전중환, 2005)

이 연구에서는 촌락이 20세기 초반까지 한반도의 중심적 생활공간이었음을 거론하고, 촌락 경관에 내포된 사회적 과정을 읽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촌락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대부분이 양반촌락, 즉 반촌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마치 반촌이 ‘한국의 촌락’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내용상 촌락 사회의 종족집단적 성격이나 마을의 형성 기원과 공간적 확대, 반촌 경관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촌락 경관에 사회적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반촌이

아닌 민촌의 촌락 경관을 그 사회적 과정과의 상호 구성적 관계 속에서 읽어 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현대 시기 동안 사례 마을의 경관 변화는 역동성 그 자체로 평가되었다. 민촌적 배경의 촌락임을 반영하듯 이 마을의 생태적 환경과 입지는 상당히 열악하였다. 20세기 초의 경지 구획 패턴에는 금강 본류 연안의 상습침수지와 싸워 온 촌락민의 집단적인 개척 과정이 반영되어 있었다(그림 10)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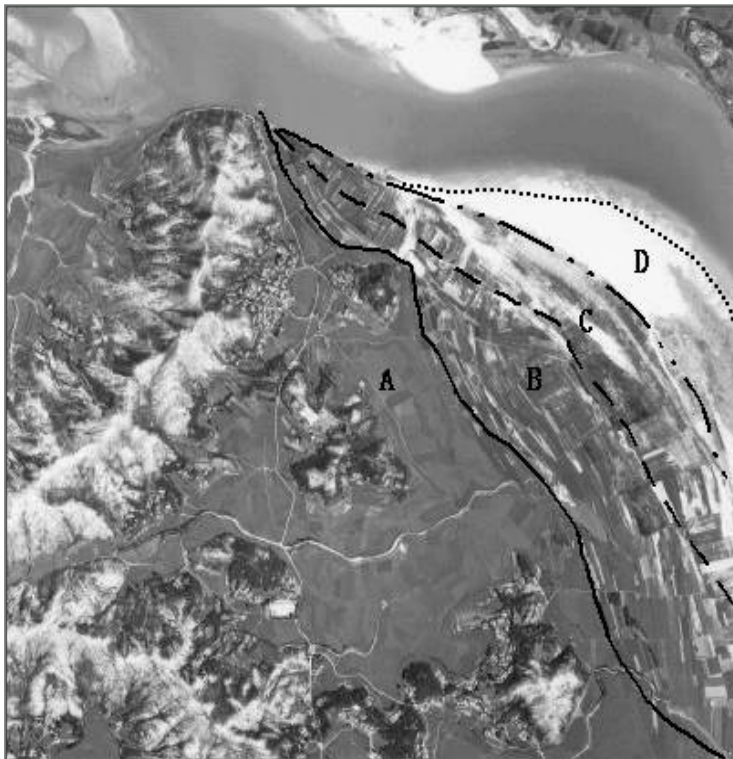


그림 10. 1966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경지의 확대 과정(전중환, 2005)

- 3) 이 사진은 민촌적 배경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추진해 온 경지 개간 과정을 보여준다. 괴상형 경지 패턴을 보이는 A 구역은 1910년대 이전부터 이미 논으로 이용되었던 토지이며, 장방형 경지 패턴의 B 구역은 20세기 초 금강변에 포플러 숲을 조성하면서 개척 전선을 급속히 확대시켜 얻은 경지이다. C 구역은 1910년대 이후 50여 년 간 포플러 숲 외곽에 새롭게 확보된 경지이고, D 구역은 1966년 현재 계속 성장하고 있는 하천부지이다. B와 C의 면적을 합하면 대략 180,000평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불확실한 자연환경 및 전통시대의 사회적 열세에 대처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국면에서는 사회주의적 집단 의식이, 공간적 국면에서는 무속 신앙 및 근대적 종교 경관을 비롯한 일련의 신성 공간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요소는 환경적 한계에 대한 촌락민의 적응 과정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였다(그림 11). 근·현대시기의 장하리는 이 같은 경관 특성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 지향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위계성보다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공동체의식을 부각시키며 인근의 반촌과 차별된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고 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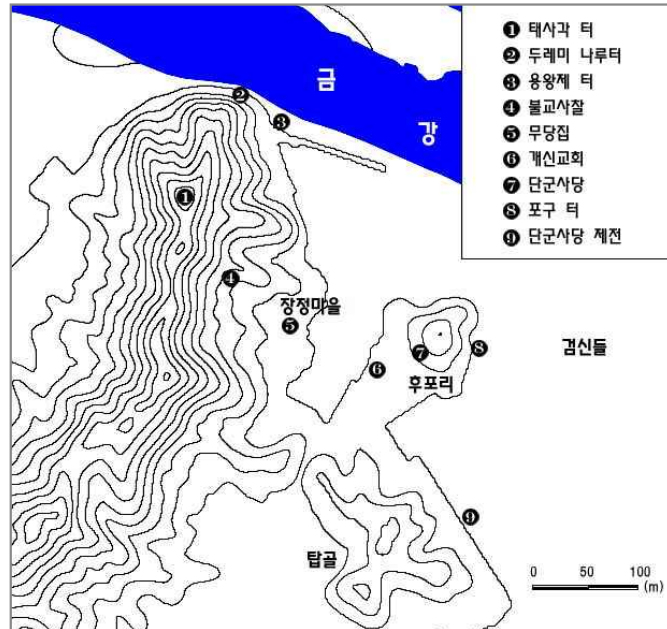


그림 11. 마을 내의 다양한 종교 경관들(전중환, 2005)

끝으로 그는 공동체의식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마을 공동소유의 호망토지, 마을회관, 비석군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기 보다는 촌락민들의 집단 의식과 마을의 사회공간적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들로서 해석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내부 지향적인 경관과 장소들은 외부 지향적, 권력 과시적 성격을 갖는 사족집단의 그것과 차별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현대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며 종족집단의 집단성을 새롭게 재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읽었다. 결국 내부적 집단성과 대외적 개방성이 공존하는 이러한 마을의 독특한 영역성고 경관적 상징성에 대해, 저자는 근·현대시기 동안 공동체 내부와 외부 사이

를 끊임없이 넘나들던 촌락민의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조선말기 郡縣圖의 표현방법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지형인식(澁谷鎮明, 1998)

저자는 풍수적 지식이 확대된 조선시대 말기에 작성된 군현도를 대상으로 그 표현방법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지형인식을 논하였다. 실제 경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재현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당시대 사람들의 경관 인식론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신선하다. 먼저 그는 1872년 군현도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풍수적 표현 방법에 관해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풍수지식의 체계, 군현도에 그러한 표현이 반영된 배경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에 의하면, 군현도에 나타난 풍수적 표현의 특징으로는, 첫째 배후의 산, 특히 主山으로부터 읍이나 관아로의 연결성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生氣가 흐르는 산의 연결성을 중요시 하는 풍수지리설의 看龍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1750-1770년대에 편찬된 《해동지도》나 1861년의 《대동여지도》에서 볼 수 있고, 한반도 전체 산들의 연결성에 관해서는 18세기 초기의 《조선전도》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지도 또한 1872년 군현도의 표현방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고을 주변의 산 줄기를 여러 겹으로 둘러싸도록 묘사한 점을 들었다. 이 때 크기나 형태 등을 풍수적인 理想形에 맞추어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읽고 있다. 이것에 대해 그는 풍수지리설에서 藏風法이 투영된 것이라 해설하였다. 즉, 풍수적으로 최고의 장소인 穴을 여러 겹의 산이 둘러싼 형국을 이상적인 보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된 風水圖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외에도 지도상에 풍수적 지명들이, 어떤 산이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는가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군현도에 나타난 풍수적 지형 인식은 지도의 작성 주체에게 그것이 하나의 形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현도의 작성 주체는 지방관인 수령이나 수령의 명령을 받은 畫工이었을 것이며, 그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산의 연결성에 관한 부분은 이전의 지도들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지도 표현 기법으로 이미 그 이전부터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고을의 중심인 읍취락이나 관아 등의 입지가 풍수적으로 좋은 장소임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자는 이해한다. 내가 보기에 저자는 군현도에 묘사된 관아나 읍취락을 일종의 소망 경관(desired landscape)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즉 주산에서 산의 맥이 이어져 있고, 산이 몇 겹으로 둘러쳐진 길지이며, 생기가 공급되고 저장되는 장소에 읍취락이나 관아가 입지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관아나 읍취락이 풍수적으로 좋은 환경에 위치해 있으면 그 지방 전체가 좋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지금까지 서술한 풍수적 지형인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군현도에 관계된 것인 만큼 수령, 화공 등 특수한 계층의 인식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의 풍수지식을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의 풍수지식을 대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경관 재현으로서의 군현도를 저자가 젠더 경관(gendered landscape)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V. 맺 음 말

경관은 지리학과 역사학의 오랜 학문적 주제이자 개념이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지역 문화 연구에 있어 경관 연구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경관 개념과 경관 연구사를 정리하였고, 문화지리학계에서 활용되어 온 기존의 경관 연구를 위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경관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앞의 세 가지 경관 연구 유형에 정합하는 주요 경관 연구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20세기 초 경관 지리학(landscape geography)의 기초를 닦은 독일의 슬뤼터(O. Schlüter)는 “한 지역의 가시적 경관은 자연적 조건과 인간 활동의 결과이면서 과정 그 자체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1920년대 슬뤼터의 경관 개념을 계승하여 미국의 문화지리학으로 승화시켰던 지리학자 사우어(C.Sauer)는 “인간은 집단적으로 자연 경관을 변형시킴으로써 문화 경관(cultural landscape)을 생산해낸다”고 강조하였다. 20세기 중반 경관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영국의 다아비(H.C.Darby)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경관의 형성으로 수렴되고, 경관은 인간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권력들 간의 순간적인 균형이자 평형 상태를 대변하며, 또한 거기에는 인간의 사상, 태도, 미학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회적인 권력 관계, 시대성·지역성을 반영하는 인간의 심미적 차원(aesthetic dimension) 등을 누적하고 있는 지리

적 실체가 바로 경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들은 경관을 단순히 ‘한 지역의 외양적 환경’이나 ‘그것의 형태적 변화’ 정도로 취급하던 기존의 지방사 연구를 비롯한 지역 문화 연구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즉 지역 문화 연구에 있어서 경관 연구가 지방의 이해를 위한 단초일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의 여러 측면들을 연쇄적이고 종합적으로 엮어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임을 상기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参考文献】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외, 2000,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권선정, 2003, 「경관 텍스트로서의 지도 읽기」, 『문화역사지리』, 제15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권선정, 2003, 「사회적 지위 상징으로서의 경관 - 하천의 풍산유씨 종택 경관 읽기 -」, 『지리학연구』 제37권 2호, 국토지리학회.
기쿠치 도시오(윤정숙 역), 1995, 『역사지리학 방법론』, 이회.
김경수, 2001, 『영산강 유역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김기혁·김성희, 2002,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 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4호, 대한지리학회.
김덕현, 2001, 「역사도시 진주의 경관 독해」, 『문화역사지리』 제13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김종혁, 2005, 「한국의 근현대 지도 제작 약사」, 『경기도의 옛지도』, 경기도.
류제현, 1979, 「농촌 경관의 형태적 연구 - 여주·이천 지방을 중심으로 -」, 『지리학논총』 제6호, 서울대 지리학과.
류제현, 1994, 『한국근대화와 역사지리학 - 호남평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4-5.
류제현, 2006, 「인천시 華僑街의 성쇠과정: 1884-1992」,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박해욱, 1992, 「백제 사비 도성의 토지구획」, 『문화역사지리』 제4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澁谷鎮明(전중환 역), 1998, 「조선말기 郡縣圖의 표현방법에 나타난 풍수지리적 지형인식」, 『문화역사지리』 제10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오상학, 200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오상학, 2005, 「경기도 고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징」, 『경기도의 옛지도』, 경기도.
윤홍기, 2001,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 사회』 제15집, 한국공간환경학회.
이기봉, 2002, 『신라 왕경의 범위와 구역에 대한 지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은숙, 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 이민의 경관 인지 -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제10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임덕순, 1998, 「古淸州의 공간적 배치와 상징성」,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4호, 대한지리학회.
전중환, 2000, 「제29회 서울 세계지리학회(The 29th IGC Seoul) 문화지리학 논문의 학술적 동향」, 『문화역사지리』 제12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전중환,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5권 2호, 역사문화학회.
- 전중환, 2003, 「내포지역 海灣開拓의 전개와 景觀變化의 사회적 주체,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2호, 대한지리학회.
- 전중환, 2004, 「내포지역 읍성 원형과 읍치경관의 근대적 변형 - 읍성취락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근대화 -,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3호, 대한지리학회.
- 전중환, 2005, 「근·현대 한 민촌의 경관 변화와 장소성의 전개, 『문화역사지리』, 제17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전중환, 2005, 『종족집단의 경관과 장소』, 논형.
- 전중환, 2006, 「민속마을 외암리의 경관 원형과 경관 동학, 『문화역사지리』 제18권 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조정규, 2002,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최영준, 1974, 「개항 전후의 인천의 자연 및 인문 경관, 『지리학』(대한지리학회지) 제10호, 대한지리학회.
- 최영준, 1991,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 『학술원논문집』 30집, 대한민국 학술원.
-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 최영준, 2004, 「『家戶案』 분석을 통해 본 개화기 경상남도의 가옥형태와 구조,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3호, 대한지리학회.
- 최원석, 2001, 『영남지방의 裨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태안 개미목 마을』, 대원사.
- 홍금수, 2001, 「18-19세기 交河地域의 토지이용, 『문화역사지리』 제13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홍금수, 2006, 「箭串場의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문화역사지리학회.